

순창군 노인 복지 2배 증가

복지예산 150억여원 → 309억, 경로당 급식돌보미사업 등 정책 눈길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알뜰히 챙기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2018년 복지예산이 150억여원에서 309억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율도 40.4%에서 59.2%로 늘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살뜰히 챙기면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 특히 순창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자체 시책을 추진해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뤘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이다.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알뜰히 챙기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기에 조기 집행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9억을 투자해 노노케어, 지역환경개선, 공공의료기관 등 공익형 등 3개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통해 각마을을 찾아 당뇨 고혈압 등 건강실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치매예방과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60세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 찾아가는 영화교실 등을 통해 문화만족도도 높이고 있으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작은목욕탕에는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 등걸이 기계도 설치해 어르신들을 알뜰히 돌보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은 노인인구가 32%정도에 이를 만큼 어르신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고령농촌 사회에 어울리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청소차 1대 추가 구입·대기오염측정망 등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임실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임실군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로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처리,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청소차 1대를 추가로 구입,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도로환경과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청소차를 추가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구입한 청소차량은 열악한 임실군 지방재정을 감안, 심 민 군수가 환경부에 요청해 지원받은 국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해 2억4000만원을 들여 진공흡입방식의 대형 청소 차량

을 확보했다.

군은 청소차량 추가 구입을 통해 임실읍과 오수면, 관촌면 소재지 등 주요 읍면의 도로노면을 요일별로 청소 구간을 정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 환경미화원들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차량 및 주민의 활동이 적은 이른 시각부터 시가지 노면청소를 실시해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은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을 통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임실읍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한다.

총 2억여원을 들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대기환경 기준 및 예보, 경보기준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군민건강

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펼쳐나간다.

청소차량 추가확보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임실군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진공흡입방식의 대형 청소차량을 운행함에 따라 살수 및 브러쉬를 이용한 진공흡입방식의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환경미화원을 통한 청소가 어려웠던 도로 측구 및 광장 등 청소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차 추가 배치와 대기오염측정망 등을 구축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 요망'

KF문자 뒤 숫자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 더 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 등 주의사항 당부와 더불어 다음달 13일까지 약국, 마트, 편의점 등 마스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 마스크의 의약외품 오인 표시·광고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 아리

순창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순창군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예비귀농인 유치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양환욱회장과 협의회 회원 등 선배귀농인들이 대거 참여해 귀농귀촌 정책 상담은 물론 지역의 문화와 농특산물 전시 등을 통해 순창에 대해 생생하게 알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2018명의 예비 귀농인들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예비 귀농인들은 면담에서 거주지 문제,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 교육, 의료 인프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산업재해예방 리플렛 배포

임실군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정책에 발맞추기로 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산업현장(공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자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 가이드북과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기업 및 관공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산업현장에서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과 예방수칙을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어린이나 노인 등 누구나 쉽게 예방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발송

순창군은 지난 23일 4월 중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303개 법인에 대하여 안내문을 우편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부분 2017년도 12월 결산법인인 이에 해당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신고는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우편이나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